

동생들 ‘댄스폭격’ 에 오빠들 ‘열광구호’

광동학원 댄스팀 호국연무사서 위문공연... 군중교구장 일면 스님 마지막 ‘이벤트’

장마비 사이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18일, 대한민국 젊은 열기의 근원지, 논산 육군훈련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초대군중교구장인 일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동학원 소속의 정부·남양주 여고 댄스팀이 호국연무사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친 것이다.

이날 위문공연은 4-6주간 외부와 격리된 채 고된 훈련으로 심신이 지친 훈련병들에게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여고생 댄스공연이었다는 소문에서 일까, 호국연무사로 발맞춰 행진하는 훈련병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침 9시가 되기 전에도 호국연무사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최대 2000여 명을 수용 가능하지만 수계법회와 위문공연 등 행사가 있을 때는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물리가 때문이다. 이날도 통로까지 채우고 남은 많은 훈련병들은 뒤에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연 전 진행된 법회는 군장병 20만 수계 원력 하에 4년간 빛



광동학원 여학생들의 댄스폭격에 훈련병 불심 불분다. 3000여 장병들이 열광하고 있다.

고 뛰어다니던 초대 군중교구장 일면 스님의 마지막 법회이기도 했다. 교구장으로서 마지막 군법회로 감회가 남다를 터였지만, 일면 스님은 군장병들의 마음을 받아 짧게 법문했다.

“이러한 인연이 닿아 군생활과

제대 후 자신의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마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곧 무대가 마련되고 여학생들이 입장하자 호국연무사는 환호성으로 터질 듯 했다. 의정부교 ‘무&

유’ 팀과 남양주 광동교 ‘카르페 디엠’ 팀 구성원 30여 명은 손담비 ‘토요일 밤에’부터 에프터스쿨 ‘AH’, 2NE1 ‘FIRE’, 4미닛 ‘핫이슈’ 등 최신 댄스가요의 섹시댄스를 선보였다. 머리를 뺨뺨히 훈련병들은 ‘원발, 원발’ 등 그들의

구호와 각 노래의 코러스로 짧은 열정을 함께 발산했다.

열기가 넘쳐, 흐르는 땀이 증발할 정도가 된 것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에 이어 ‘Gee’가 공연됐을 때. 서슴치 않는 스킨십 등 무대 매너에 훈련병들의 환호는 더욱 높아졌다. 1시간 가량 계속된 공연에 힘들 법도 하지만 여학생들의 얼굴에도 환희와 보람이 가득했다. 법당 가득한 젊음을 부쳐 남도 흐뭇하게 내려 보고 있었다.

이날 공연팀 리더인 임해진(18) 양은 “호응이 높아서 뿌듯하고 시간도 금방갔다. 무대에 오르기전 다소 떨리기도 했지만, 군대 간 친오빠처럼 친근했다”고 수줍게 웃었다.

주지 보운 김충봉 법사는 “불교계에서 광동학원이 여고생 위문공연을 정기적으로 해줘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며 “1년에 몇 번 되지 않지만 파급효과가 엄청났다. 이 열기를 이어 군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100일의 약속 ‘내 집 법당으로’

정토회, 제6차 백일기도 입재



6차 백일기도에서 원력을 다지고 있는 2000여 정토회원들.

장마가 한창이던 7월 1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정토회 제6차 백일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정토회 회원 2000여 명이 모였다.

1부는 5차 백일기도 회양식으로 대표인사에 이어 참가단체 소개와 정토회 합창단의 음성공양, 정토행자 100일간 영상이 상영됐으며, 5차 백일기도 실천과제 결과 발표 및 시상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지리산 칠선계곡에 산다는 김대호씨 외 2명의 실천과제 사례발표와 함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회향법문이 있었다.

점심공양 후 열린 6차 백일기도 입재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신규 입재자 382명이 결의식을 가졌

다.

법륜 스님은 입재법문을 통해 “운명이란 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습관에 있다. 이런 습관의 업식이 내 운명이고 고통의 근원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업식을 끊기 위해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며 당부했다.

이어 이번 천일기도 6차 실천과제인 ‘내 집 내 직장을 법당으로’ 개인 실천과제와 ‘열린 법회 3번 열기’ 지역 정토회 실천과제, ‘행복을 전하는 전방 캠페인’ 그리고 ‘가볍게 합시다’ 명심문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나라 안정 기원하는 불자 되자”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국태민안 법회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회장 홍천)는 7월 19일 홍천 연화사(조실 화답)에서 회장 지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영산대재 국태민안 경제회복 대법회’를 봉행했다.

청와대 스님 집전으로 시작된 영산대재에 이어 열린 국태민안 경제회복 대법회에는 통합종단중흥회 회장 지암 스님, 통합종단중흥회 도산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혜철 스님, 노승철 홍천군수 등 통합종단중흥회 각 원장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7월 19일 홍천 연화사에서 거행된 국태민안 대법회.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법회는 정책 원장 원당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전원장 화담 스님의 환영사, 수석부회장 위산 스님의 격려사, 총재 도산 스님

과 노승철 홍천군수의 축사, 재정원장 법광 스님의 기원문, 행정원장 법장 스님의 상축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지암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영산대재의 봉행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겨 가정과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055)338-4008 김성우 기자

“불자들은 복 받을 그릇 키워야”

원각사 개금불사 점안법회 봉행

충북 영동군 원각사(주지 자해)는 7월 21일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중앙총회 부회장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이날 점안법회는 태고종 총부교구 총무원장 원해 스님(정심사 주지)을 비롯한 대덕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대웅전에서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에는 법회가 봉행됐다.

원해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원각사 중장불사를 계기로 불사에 참석하신 모든 인연이 있는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지비 속에 늘 함께하시고 불심이 날로 증장돼 모두 성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복은



원각사 개금불사에 참석한 100여 대중.

운천지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 것을 받을 그릇이 작거나 없기에 못 받는다. 여러분은 그 그릇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안법회에서는 김삼종 보현사 신도회장과 조명현 신도에게 중장불사에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베트남불자 방한

대성사, 8일영사 초청

육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7월 19-23일 베트남불교회 산하 하이즈영도 8일영사(주지 석교영)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8일영사 석교영 스님과 신도들은 직지사, 법주사, 대운사 등에 참배하고 김천시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이주여성가족복지지원센터, 육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우수 복지시설을 견학했다.

베트남불교회는 이번 초청 방문을 기념해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에 베트남 스님을 상주시켜 베트남 법회를 주관할 것을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이주민 위한 통번역 OK

꿈을이루는사람들, 통번역원 양성교육 수료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는 7월 18일 ‘유쾌상쾌소통 이주민 통번역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식을 봉행했다.

구미시가 진행하는 ‘행복한 구미만들기 사업’ 일환인 이번 양성교육을 통해 시민 및 공공기관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할 상담원 20명이 배출됐다.

이번 양성교육으로 번역원으로 활동할 몽골출신 엇경자르갈(27)씨는 “2007년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몰라서 많이 힘들었다”며 “저처럼 한국에 막 도착해 한국말에 서툰 이주여성에게 통번역 봉사활동을 할 수 있

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교육 관계자는 “30시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이주여성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국 언어지원 봉사료 이주여성들이 구미 지역민으로 한층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 등 이주민 복지사업에 나서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보 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권클봉안 해

국내 초유일인
동참집수 : 2009년 5월~ 9월 5일 | 점안식 :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감사의 청어 합장 -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복장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에 중생불사의 외연을 이루소서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재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이 : 110cm
원통폭 : 45cm
일련폭 : 30cm
무게 :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에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식)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룡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털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